

유한양행, 군포시대 접고 오창으로!

2005년 충북 오창과학단지 입주 계획 ... 연구소는 수도권으로 이전

유한양행 군포공장이 충북 오창과학단지로 이전한다.

유한양행은 2월3일 군포공장 부지 2만4000평을 신일건업에 766억원에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며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까지 오창단지로 공장과 설비 등을 모두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인력 수급의 성격상 오창으로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대체 장소를 마련할 이전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측은“1979년 설립된 군포공장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도 협소해 이전을 결정했으며, 오창단지에 2005년 말까지 공장 건립을 마무리하고 설비와 인력 이전 등을 마친 뒤 2006년 초부터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군포공장에는 종업원과 연구원 등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산제품은 <안티프라민>, <비콤폐> 등이 있다.

유한양행은 2월22일께 공장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04>